

###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임시상담과 교우문 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 서산 보원사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조종민

3월 18일 서산 보원사지에 다녀왔습니다. 서산 마애삼존불로 유명한 곳이지요.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지 스님과 녹색연합시민연대의 개발 저지 노력은 한전이나 도로공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해 보였습니다. 서는 보원사지에 갔다 와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방송국들은 우리의 강렬달란 문화재를 외국에서 환수 받아야 하고 몇 천 년 된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소리 높여 얘기 하지만 정부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해 문화재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무방비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문화재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님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여러 가지 보물들과 훌륭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들을 눈앞에 이익 때문에 관리 소홀히 하고 차츰 차츰 사라져가게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미래에 후손들은 우리가 몇 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디서 왔는가 하는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의 말과 글보다는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거나 느끼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겐 더욱 큰 역사 공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 보원사지에 다녀오실 것을 강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앞에 나가 스님들이나 시민 연대마냥 투쟁하지는 못하겠지만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짬짬이 시간 내어서 여러 사이트에 보원사지가 처한 상황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누구 한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문화재의 주인은 대한민국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불자의 입장에서 성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서울 목련암 청년회)

## 남녀의 애정과 농촌 계몽 의지 담아

###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어느 시인의 "시장바다에 허드레 눈이 시장사람들처럼 내린다"고 표현한 시를 읽은 적이 있어요. 내남없이 내리는 눈을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그 시인은 눈을 조용히 깊이 들여다보고 삶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저어하면 안 돼요. 봄이잖아요. 함초롬하게 핀 봄꽃들이 긴 겨울을 건너온 우리에게 대한 위로일까요. 언어에는 생명이 있지요. 언어는 우리의 정신을 표현해주는 것이죠.

감상 일을 가능 보아 해 낼만한 능력.

내남없이: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열대야에는 내남없이 잠을 못 이룬다.

저어하다: 두려워하다.

집착을 저어하여 아예 사랑을 만날 기회조차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청구: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

함초롬하다: 가지런하고 곱다.

허드레: 함부로 쓸 수 있는 허름한 것.

안명옥(시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본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 심문작 '상록수'

농촌 계몽 소설의 대표적인 장편입니다. 수탈당하고 황폐화된 농촌인 한곡리와 청석골을 배경으로 하지요. 계몽주의와 민족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진 이 소설의 주제는 농촌 계몽 운동을 하는 남녀의 순결한 애정과 농촌 계몽을 위한 헌신적 의지입니다.

<상록수>에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지요. 1930년대 조선은 일본이 제국주의의 야욕을 맘껏 드러낸 때여서 온갖 시달림을 받고 있었지요. 백성들은 신음했으며 농촌은 특히나 가난에 찌들었던 때였지요. 가난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듯 간도로 떠난 농민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동아일보사는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을 펼쳤는데 '브나로드'는 '민중속으로'라는 뜻의 러시아어 말이지요. 19세기 말 러시아 지식인들이 농민 속으로 들어가 농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나타낸 말이지요. 우리나라 청년들 사이에도 농촌으로 들어가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농민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지요. 이광수의 <흙>이나 심훈의 <상록수>에는 이런 생각들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그 배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작가는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농촌과 문맹을 깨우쳐 보려는 자세를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스토아 부인의 '영클 톨의 오두막집'을 읽은 링컨이 노예해방 운동을 하듯 글의 힘은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하잖아요. 작가는 마지막 장의 제목을 '최후의 일인'이라고 하였어요. 작가는 영신이 일본에서 학업도중 병이 걸려 돌아 온 것을 통해 영신이 죽은 것이 일본과의 싸움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며 영신과 동혁이 하고 있는 일은 사

### '브나로드' 운동 작품에 반영 마지막장 '최후의 일인'은 민족 살릴 사람 상징한 제목

실 일본이 억압하고 있는 일, 즉 창씨개명, 우리말 사용금지에 대한 정면 도전인 셈이겠지요. 영신이 비록 죽었다고는 하지만 최후의 일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살아 있음을 알게 한 것이죠. 누군가 싸우다가 죽어도 우리 민족을 살릴 사람은 언제나 남아서 상록수 그늘을 걷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제목으로 읽혀져요.

신문사에서 주재한 학생 계몽 운동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모인 자리.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중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계몽 대원의 사명이다.'라고 외치는 박동혁은 그 자리에서 여학생 채영신을 만난다. 자연스레 몇 번을 만나며 이 두 사람은 농촌에 뛰어들어 농민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동혁은 한곡리에서, 영신은 청석골에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과 부녀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을 회관을 짓기 위해 밤을 지새워 일하는 가운데 둘의 사랑은 깊어간다.

사치를 일삼으면서도 몇 푼의 기부금에 달달 떠는 부자들 사이에서 수모를 겪고 주재소 신세까지 지게 되며 영신은 혼신을 다해 청석골 회관 짓는 일에 매달리다 결국 회관을 다 지어 건립식을 앞두고는 맹장염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된다. 영신을 간호하다가 퇴원할 때쯤 해서 한곡리로 돌아간 동혁도 시련을 겪는다. 동혁이 없는 동안 기적이란 인물이 한곡리 청년회 회장이 된 것이다. 동혁은 동생 동화가 회관에 불을 지르려다가 들키는 바람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다.

한편 공부를 해 보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영신은, 청석골에 대한 그리움과 동혁에 대한 걱정으로 몸이 더 상해 버렸다. 끝내 청석골로 가서 죽는 순간까지 일하겠다고 돌아온 영신은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일하다가 감옥에서 나온 동혁을 만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1934년, [동아일보] 발간 15주년 기념 현상 모집에 당선되어 1935년부터 연재된 '상록수'는 영화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안명옥(시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 학림사 오동선원 조실 한임대원 스님 뵈어집

## 철벽을 부수고 벽안 [碧眼]을 열다

학림사 오동선원 한임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그리고 면면이 이어지는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의 핵심.



### 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시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 국내 초역인 "밀전참선요법"과 "밀전법범통지" 수록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은 것은 물론 고암 스님이 쓰시던 법우와 주장자, 금관가사를 물려받은 오동선원의 조실 한임대원 스님. 부처로부터 이어지는 황금의 여러 법맥 중 한반도에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한 가지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임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시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곧 부처님이 가집 존자에게 눈짓해 보인 소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요, 팔만사천 법문의 핵심으로 깎쳐들어가는 일이며, 이 혼란스런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에 거하는 묘한 도리를 깨우치는 일일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양장본 / 352쪽 / 값 13,000원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Tel: 02)2004-8219, Fax: 02)737-0696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